

회원조합의 지도사업은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한농연 “협동조합 개혁 점검표” 분석 결과 보고 II -

지도사업 평가 결과 -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내실화된 운영 시급

지도사업은 그 자체로는 회원조합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기술·경영·유통 관련 역량 및 조합 내 각종 사업 추진시 결속력을 강화시켜 경제·신용 등 여타 사업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원조합 지도사업의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곧바로 해당 조합의 농민중심적 효율 경영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늠

● 표 11 : 회원조합 교육 내용의 유용성 관련 분석 결과 - 중복 응답

교육 제목 및 내용	조합장	이감사	대의원	조합원
① 협동조합 이념 및 운영원칙	2.52	2.26	2.20	2.06
② 협동조합 운영 실무의 이해 (경영성과 파악 및 감사 업무)	2.27	2.27	2.06	1.94
③ 조합의 사업 계획 설명	2.26	2.13	2.24	2.13
④ 경제사업 활성화	2.17	2.09	2.07	2.14
⑤ 영농기술 교육	2.04	1.95	2.01	2.26
⑥ 농정시책 홍보	2.06	2.09	1.98	2.04
⑦ 기타	1.50	1.73	1.77	2.14

(참고 : 질문에 대한 응답은 상(上)은 3점, 중(中)은 2점, 하(下)는 1점으로 환산·평균치를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내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나타냄)

하는 척도로써 작용한다.

회원조합의 지도사업 운영에 관한 점검을 위해, 한농연은 지도사업 예산 협동조합 교육·홍보사업 영농지도사 운영 지역농업활성화 전략 수립 경영공개와 조합의 민주적 운영 임직원 인건비 관련 사항으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지도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중 가장 주목할 것은 회원조합이 실시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이다. 회원조합들은 임직원 및 대의원·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는 대체로 중(中 - 3점 만점 계산시 2점 이상) 이상의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원조합의 교육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욕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회원조합의 경영 공개와 민주적 운영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1995년 신원칙 중 하나로써,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지키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 결과, 조합 정관 및 결산보고서등 기초 자료에 대한 공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등 조합 운영에 관련된 핵심 자료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개정된 농협법에 의하여, 조합원 300인 이상 혹은 5/100 이상의 동의시 각종 회계장부 사본의 열람·청구가 가능해졌으며 대의원총회 자료에 해당년도 예결산 관련 상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법 조항이 일선 조합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체로 "① 그렇다"에 응답하여 다수의 조합에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는 조합 수도 상당하여, 농협법 조항에 근거한 기초적인 조합 경영 공개부터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한농연 농협 개혁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회원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조합의 경우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의 공개는 물론이거니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조합 홈페이지에 개요를 게시함으로써 조합 경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 모범사례도 있다(안성 고삼농협 등). 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조합원들의 불신 해

● 표 12 : 회원조합 정보 청구시 공개 여부 분석 결과

구 분	조합원 300인 이상 혹은 5/100 이상 동의시 각종 회계장부 사본 열람·청구 가능 여부	대의원총회 자료에 해당년도 예결산 관련 상세 부속명세서 첨부 여부
① 그렇다	255	238
② 아니다	101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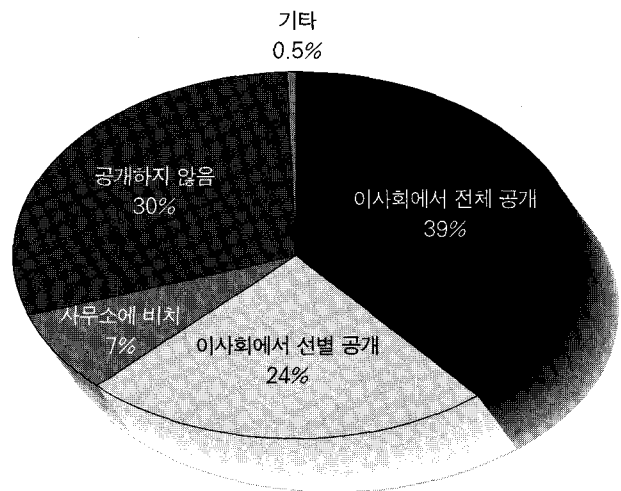
● 표 13 : 농협중앙회 규정 및 업무지침에 대한 조합원 공개 여부 분석 결과

구 분	응답자(명)
① 이사회에서 전체 공개	144
② 이사회에서 선별 공개	87
③ 사무소에 비치	27
④ 공개하지 않음	110
⑤ 기타	2

소 및 결속력 강화를 통해서 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므로 회원조합들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회원조합의 임직원 월급 등 인건비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① 그렇다”에 123명 “② 아니다”에 259명이 답하였다. 이는 조합내 임직원들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직원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 인건비성 경비(체력단련비, 업무활동보조비, 중식비, 당직비 등)의 방만한 지출 여부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들이 훨씬 많은 점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 고위 임직원 및 전국 농협노조 등과의 결끄러운 갈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올해 초 고흥군농민회가 발간한 “협동조합 개혁 백서”를 통해서 본 조합장 및 임직원의 고액 연봉 파문은 전 농업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일이 단적인 예이다. 결국 농민조합원들의 회원조합 임직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또한 쉽게 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표 14 : 회원조합들의 경영정보 공개 관련 분석 결과

구 분	① 정관	② 이사회 회의록	③ 총회 회의록	④ 결산보고서
응답자(명)	207	142	152	260

● 표 15 : 회원조합들의 직원급여·각종 경비 공개 관련 분석 결과

구 분	직원급여 수준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	인건비성 경비 방안 지출여부	인근 조합과의 원활한 인사교류
① 그렇다	36	61	31
② 그런 편	73	79	78
③ 그저 그렇다	124	95	97
④ 그렇지 않은 편	76	73	91
⑤ 그렇지 않다	77	74	96
평 점	3.20	3.04	3.36

(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평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숫자가 낮을수록 조합원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함)

현재 조합장 및 임원들은 조합 경영상 기밀사항의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은 타 직종과의 임금 비교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인건비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민조합원들의 불신 해소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직급에 따른 호봉제도 및 각종 경비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농연 출신 농협 임원·대의원의 농협개혁 의식 조사 결과

한농연의 지역별 시군·읍면동 조직은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역 실정에 알맞게 실시해 오고 있다고 응답자들은 답변했다. 각 지역에서는 대의원총회 대책 교육 및 회의 실시 농업경영인 대상 협동조합 교육 사랑방 좌담회 등의 개최를 통해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일반 회원 및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교육과 대의원총회 대책 교육 및 회의 실시 시·군내 대의원·이감사 집합교육 등을 통해, 한농연의 협동조합 개혁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힘있고 통일화된 농협 개혁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제는 관내 조합장·이감사·대의원들의 농협 개혁에 대한 이해도 및 적극적인 참여 여부이다. 대체적으로 지역 내 조합장·이감사·대의원들의 농협 개혁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는 “③ 보통이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곧장 한농연 농협 개혁 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이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나타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제로는 농협 개혁 과제에 대해(중앙회 신경분리, 농협 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제 실시 등)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한농연 및 지역 농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표 16 참조).

● 표 16 : 관내 조합장 임원·대의원들의 한농연 농협 개혁 과제 이해도 분석 결과

구분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① 높다	75	63	72	65
② 높은 편	62	81	73	82
③ 보통이다	109	108	112	117
④ 낮은 편	55	64	54	53
⑤ 낮다	36	34	34	36
평점	2.73	2.79	2.72	2.75

(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평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조합원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함)

아울러 응답자들은, 한농연 출신 조합장·이감사·대의원들이 농협 개혁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추대·결의를 통해 진출한 조합 임원 및 대의원들은, 12만 농업경영인과 400만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응답자들은 한결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한농연 각급 조직과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한농연 농협 개혁 과제에 대한 이해 및 동참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한농연 각급 조직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농협 개혁은 농협중앙회나 회원조합 임직원들의 몫으로만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농민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회원조합의 건전경영을 이끌어내고 농협중앙회의 농민중심적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한국 농협은 400만 농민의 처참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근본적 농업·농촌 회생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회원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용화된 한국 농협 조직이 농민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동조합 정신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400만 농민을 위한 경제사회적 결사체로 농협을 개편하는 상향식 개혁 운동이다.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위한 한농연 12만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농연**